

섬김의 교회는

8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와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 치유, 회복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믿음 성장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한 3서 1:2

예배 및 모임안내

- 주일예배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am
- 주일학교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뉴 라이프 교회)
- 주일 성경공부 Sunday Bible Study / Sunday 11:00 am
- 금요찬양예배 Friday Service / Friday 8:00 pm
- 새벽 경건회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 to 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주중성경공부 Bible Studies / Tuesday 8:00 pm (zoom)
- 일대일 제자훈련 Discipleship Classes / Monday 10:00 am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교회위치 Location



800 E. Palatine Rd., Palatine, IL 60074
847) 691-7846
www.churchofservant.com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2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훈태 집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사도행전 1:14-21 (신약 189쪽)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 됨의 축복”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찬송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나눔)	봉헌 최내권 / 오정은 집사 ★봉헌찬송 / 213장, 4절 “나의 생명 드리니”
세상과 삶으로	★찬양 / 찬송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

찬양과 기도

성경: 사도행전 2:14-37

묵상 제목: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 각인의 머리에 임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후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능력을 받아 전혀 배우지 않았던 각종 언어로 방언을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할 때 한 번에 수천명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성령이 불꽃처럼 또 바람처럼 내린 이날, 비로소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강림절을 맞이하여 한 가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여 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여 명이나 되었다고 기록돼 있지만, 과연 이 숫자는 충분한 숫자일까요?

개역개정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백이십 명이나 되더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약 120여명 정도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120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안식일 다음 날) 즉 주일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 이 땅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바울의 증거에 따르면, 약 6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전 15:4-8).

- 1) 열두 제자 2) 오백 형제 3) 야고보(예수님 동생)
- 4) 모든 사도(70문도) 5) 바울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신 후 40일째 되는 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과 함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순절 때 모인 무리의 수가 120여 명밖에 안 됐다는 점입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본 이들 480여 명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불과 10일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에 “기다리라”는 명령을 잊어버리고 (혹은 무시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6 그 결과 이들은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라”는 요엘 2장 28-32절 예언이 실현되는 역사적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엔 잠시 혹했던 부활 이야기, 영생 이야기, 천국 이야기가 그렇게 큰 매력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으니 자기 일을 하러 가지 않았던 이들처럼(마 22:1-14) 이들은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그러나 택함을 입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체도 보지 못하고 그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2천 년 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의 객관적 신앙 조건은 분명 이들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만 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심’과 또 ‘죽은지 사흘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습관처럼 입술의 고백은 할 수 있을지언정,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았던 열두 사도처럼 실천하는 신앙을 갖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주변 신앙인들을 보면 입술의 고백이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처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한 사도들에 의한 증언이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는 사도들의 증언이 핵심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480여 명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만나보고도 믿는 특권을 포기하였지만, 우리는 성경 기록만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3년을 보내고 또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한결같은 증거에 힘입어 오늘날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또 미래를 향한 약속에 대하여 먼저 자신이 잘 알 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벧전 3:15).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한 가지 즐거운 소식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점입니다(요 14:2). 그래서 천국은 잔치에 자주 비유됩니다.

여러분 모두 120문도처럼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를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 친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소식 5월 가정의 달 /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1. **가정의 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가정과 성도가 됩니다.
2. **성령강림주일** 기도와 말씀,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3. **소금과 빛 된 주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4. **5월 Oikos 셀 모임** 오늘 저녁 최내권/선운 가정에서 모입니다.
5. **성경읽기운동** 성경 일독 운동이 계속됩니다.
6. **중보기도** 매일 낮 12시, 저녁 9시 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7. **나눔과 교제** 주일 점심 친교 후, 다 함께 교제합니다. (3:00-4:00pm)
8.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 전심을 다 합시다.
9. **문서전도** 매주 목요일판 “교차로”에 섬김의 교회가 참여하는 **복음메시지**가 실리고 있습니다. 시카고 이민사회의 믿음회복과 복음전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소식

생일축하

Jacob Kim(7) 구 민(8) 구민우(16) 최내권(20)

5월 사역

성령강림 주일/Oikos 모임(19) 선교주일/사역친교(26, 예배/찬양/관리) 선교주간(26-6/1)

한 주간의 말씀

사도행전 2:38, 42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4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누리는 축복들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가 되어 평화와 축복을 누린다.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며 기쁨과 평화를 함께
 누리며 이웃에게 전하자.

말씀요약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열흘간 기도했다.
 오순절, 성령님은 강한 바람처럼 갈라지는 불처럼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경험한 축복들을 살펴보자.

첫째,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이다. 성령께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침체된 영을 깨워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순종하게 된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자.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죄를 깨닫고 죄를 떠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성령께서 죄를 범한
 우리를 책망하시며 회개하게 만드시기 때문이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된다.

셋째, 하나가 된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
 되며, 이웃과 이어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 제자들은
 성령충만으로 신분의 구별이 뚜렷하던 당시 세상의 모든 차별을
 초월했다. 성령님 안에서 모두나 하나가 되었다. 우리도 함께 모이며,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가 되자.

로마제국 전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가 되고, 교회공동체를 이루어 복음을 전파했다. 그
 능으로 그들은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 성령충만을 받았다.

우리도 성령충만을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야 한다. 성령충만으로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이웃에 전하자.

1. **성장과 열매:** 2024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들이 열매를 맺도록
2. **영성:** 삶 속에서 말씀묵상과 기도로 영성 훈련하도록
3. **가정의 기도 제목:** 사업의 어려움, 파병된 자녀의 안전, 새로운 준비를 하는 자녀, 건강의 회복
4. **가족:**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5. **교육사역:**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Youth Ministry를 위해
6. **Oikos 가정사역:** 소그룹 사역으로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7. **선교지와 선교사:** 네팔/뉴욕(박은주 선교사)
8. **이웃 교회들과 연합사역:** 샬롬교회/찬양이야기 사역

선교 소식 (네팔/뉴욕, 박은주 선교사)

1. 뉴욕 문화/봉사/기도 센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속히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2.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참된 사역들과 사역자들이 되도록
3. 가족들의 구원, 영적으로 성장하며, 육적으로 지치지 않고, 맑은 사역에 충성하며, 분별력을 가진 삶을 살도록

예배 섬김이

주일 기도 인도	5월 19일 김훈태 집사
	26일 구은강 집사
주일 봉헌 인도	6월 2일 박진성 집사
	6월 9일 김윤경 사모

주일 예배 안내	5월 19일 최내권/오정은 집사
	26일 오정은/최내권 집사
섬기는 사역자들	6월 2일 구 민/최선윤 집사
	6월 9일 최선윤/구 민 집사
	5월 김훈태 집사

지도목회자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교육전도사 (Youth Minister) Jacob Kim 전도사
 찬양인도자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